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과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의 고찰

김 석 용*

논문접수일 : 95. 6

게재확정일 : 95. 11

초 록

오늘날의 규제 완화와 경쟁 격화, 급격한 기술혁신, 그에 따른 제도 변화 및 경쟁과 협동의 공존 하에서는 기업을 신고전파적 가정 하에서 파악하기 보다는 제도속에 내재되어 진화하는 실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대상에 포함하고,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거래비용경제학, 재산권경제학, 대리이론 및 진화론적 경제학의 입장에서 전개된 기업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한 기업간 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영역은 경영학의 범주와 중첩되므로 보다 체계적인 기업 행동의 이해와 설명을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의 관점에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제시하는 제도, 계약, 거래비용, 제한합리성, 기회주의, 지배조정구조, 신뢰, 협동, 진화의 개념은 구제도학과 경제학 및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동태적 환경에서의 기업의 조직과 행동을 폭 넓게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경영학에서의 함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고는, 문헌 연구를 통해 기업 및 기업의 확장된 형태로서의 기업간 네트워크를 신제도학파적 틀에서 일관성있게 고찰함을 주목적으로 하되 제도와 기업의 거시적 관계를 체계화하고, 통합적 기업이론의 정립을 모색하며 그 모형에 필요한 기업의 핵심적 요소 구조를 도출하여 보고자 하였다.

* 동국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I. 서 언

최근의 국제적인 규제 완화와 급속한 기술혁신 하에서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정부의 구조와 기능 및 금융시스템과 기업구조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 형태의 모색, 경쟁과 협력관계의 동시적 유지,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체계의 신속화, 기업구조의 재편성, 지배조정구조(governance structure)의 재조정,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등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과 기업간 관계에 관한 이해를 재정립하고 그에 기초한 기업 행동 설명의 틀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경쟁 하에서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보다는 정부의 정책 등 외생적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우리의 경우, 변화의 흐름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하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일관성있는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는 보다 현실적인 기업이론과 기업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틀이 전제되어야 하나 아직 체계적인 비교 고찰이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노력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틀의 정립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작은 시도로서 첫째로, 1970년대 이후 보다 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가장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주요 신제도학파적(new-institutional)기업이론들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제도와 기업과의 관계의 틀을 고찰하며 통합적 기업이론을 모색하고 그에 필요한 요소 구조를 체계화시켜 보고자 한다. 둘째로, 기업의 행동은 기업간 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기업의 영역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경된다는 인식 하에서 단일 기업이 확장된 형태로서의 기업간 네트워크 현상을 기업이론의 확장적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학파적 틀에 기초한 네트워크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되 기업이론의 틀과 관련시켜 그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경영학에서 묵시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다기화된 기업이론들을 신제도학파적인 관점에서 체계화함으로써 향후의 통합적 기업이론의 연구에 기여하고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제도, 경제조직 및 경제적 성과

오늘날의 기업은 신고전파적인 단순한 생산함수나 원자적인(atomistic)행동 단위가 아니며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속에서(Grabher, 1994) 타기업과의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한다. 따라서 제도내에서의 기업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제도와 기업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접근은 그동안 舊제도학과, 내지는 新제도학과경제학¹⁾적 틀에서 이루어져 왔다.

1900년대 초에 등장한 舊제도학과경제학(old institutional economics)은 신고전파 이론의 특징인 완전 합리성(unbounded rationality), 정태적 균형, 개인주의적 방법론, 경제 분석에서의 제도 무시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한합리성(bounded rationality), 진화적 동태 과정, 총체주의적(holistic) 접근, 제도중시의 입장을 주장하였다. 舊제도학파의 주창자였던 Veblen²⁾은 제도를 대부분의 인간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사고습관, 내지는 습관화된 집단행동의 구체적표현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는 제도가 생물학에 있어서의 유전자와 유사한 것으로서 안정적이고 관성적 성격을 띄며 시간경과에 따라 주요 특징이 전수되고 진화되면서 현상 인식의 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Commons³⁾에 의하면, 제도란 개인의 행동을 제한하고, 확장하는 통제적이고, 집합적(collective)인 성격의 비조직화된 관습이며 개인의 상호 작용을 규제하는 공유된 규범의 체계로서 인간에 내부화되어 사회의 다양한 활동을 규제하고 안정화 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도의 영향을 중시하면서 총체적인 입장에 입각하여 경제의 진화와 변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이론의 체계화와 실증연구의 결여로 비판을 받았다.

1) Eggertsson(1990)은 신제도학과 경제학을 new institutional economics 와 neo-institutional economics 로 구분하고 전자는 신고전파의 핵심인 합리적 선택모형 기부, 선호의 불안정성, 제한합리성(극대화 대신), 만족의 원칙에 기초함으로써 舊제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 후자는 신고전파와 舊제도학파의 결합으로 정의, 전자보다 더 강한 실증적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Williamson(1985)은 new institutional economics로만 표현하고 있는 바, 여기서는 Williamson의 표기를 따르기로 하며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약칭으로 신제도학파를 사용키로 한다.

2) 3) Veblen과 Commons의 주장에 관한 내용은 제도학과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Maki, 등(1994)의 문헌과 Rutherford(1994), Sjostrand(1993), Hodgson(1993)에서 인용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 대두된 신제도학과경제학은 대체로 신고전파가 무시하였던 제도적 현상을 고려하되 다소 완화된 가정에 입각하여 신고전파의 체계 내에서 경제현상을 분석하려는 제 접근을 의미한다. Eggertsson(1990)에 의하면 신제도학과경제학은 내생변수의 차원에 따라 첫째, North(1990)와 같이 거래비용 개념을 이용하여 정치 제도의 구조와 사회 정치적 규칙을 내생적인 것으로 보면서 제도의 생성 변화 및 경제 성과에의 영향을 다루는 입장과 둘째, 기본적인 재산권구조를 외생변수로 보고 교환 조직을 내생변수로 보는 Williamson(1985)의 차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특히 North는 제도를 인간이 고안한 공식적 규칙 및 비공식적 제약으로 구분하고 제도분석을 경제사 연구에 도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공식규칙은 법, 규칙, 재산권 및 특정 계약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협상력의 전제하에서 교환을 용이화 한다. 특히 정치 규칙은 경제규칙의 제정에 영향을 주므로 재산권과 그에 따른 계약들은 정치적 의사 결정에 의해 형성되고 시행된다. 따라서 경제성과에 영향을 주는 정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예측이 공정히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재산권구조는 기술 변화등에 의한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변동되지만 정치 시장이 비효율적 이거나 재산권 행사에 드는 거래비용이 큰 경우 비효율적인 재산권구조가 지속되어 경제활동의 성과를 제약할 수도 있다. 특히 재산권구조에 내포된 경제행위에 대한 유인 구조는 개별 계약 내용 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기회 집합에 영향을 미치므로 탄력적인 공식적 제도의 조정이 경제 구조의 효율성 유지에 긴요하게 된다. 비공식적 제약은 반복적인 인간의 상호 작용과 타인과의 관계 설정에 틀을 제공하는 특유의 문화적 유산으로서 관행, 행위규범 등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변화 속도가 느리며 공식 규칙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제한과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 능력의 한계라는 합리성의 한계하에서도 인간의 상호작용 비용을 감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비공식적 제약에 내재하는 혈연 관계, 충성심, 평판 중시, 공통적 신념, 신뢰성과 관련된 사회의 특성은 계약 불완전(incomplete contract) 하에서 교환 대상의 측정, 계약 수립, 시행 및 감시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제도는 교환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구조를 형성하므로써 개인의 선택집합과 거래비용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성과를 좌우하며 경제내의 상대가격의 변화와 기호의 변화, 그리고 학습과 숙련에 따라 설정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틀에

영향을 주는 중요 기능을 수행하지만 아직도 상대가격 변화와 이데올로기간의 상호작용 및 이데올로기가 제도 변화에 미치는 역할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제도 이론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Williamson(1985,1990,1992)은 신제도학과경제학을 법학, 경제학, 조직이론간의 학제적 영역이라고 본다. 그 특징은 첫째, 제한합리성 개념 하에서 제도가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 둘째, 제도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지배조정구조로서 상이한 경제조직의 유인, 통제 및 정보 처리상의 차이 파악에 중요하다고 보는 것, 셋째, 거래비용 개념을 도입한 경제조직의 비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 넷째, 경제조직의 중심 문제가 인간 행동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등이 제시된 바 있다. 그는 North의 경우보다는 좁은 범위에서 제도를 분석하되 법, 규범 등의 제도적 환경을 주어진 외생변수로 보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경제조직을 제도적 조정(arrangement)으로 본다. 그는 Simon의 영향을 받아 인간 행동상의 제한합리성 및 기회주의라는 특성과 거래상의 불확실성, 거래 빈도 및 자산의 특유성(asset specificity)이라는 차원을 결합하여 거래 계약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적인 지배조정구조의 모색을 시도하고 이 같은 관점에서 시장, 위계및 그들간의 혼합 형태를 상호 비교한 바 있다.

Ⅲ. 신제도학과적 기업이론

3. 1. 신제도학과적 기업이론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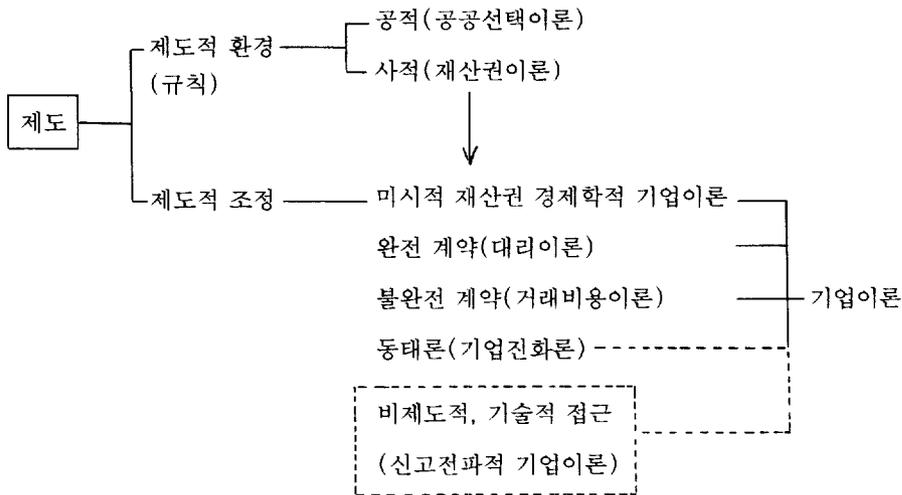
신제도학과적의 범주에 관하여는 아직도 통일적인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Hodgson(1993), Maki(1994) 등은 신제도학과적 영역과 관련된 연구로서, 조직 및 관료주의, 집합적 행동논리와 경제성장이론, Furubotn, Pejovich(1974)의 재산권 경제학, 지대(rent)추구, 법경제학과 관습법, 자생적 질서, North(1991)등의 제도사로서의 경제사, Alchian(1950), Alchian, Demsetz(1972)의 재산권과 기업제도, Aoki등(1990), Williamson(1985)의

기업제도, 그리고 규칙, 게임, 규범, 제도 연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과 관련된 대표적인 접근방식은 재산권경제학(economics of property right)적 분석(Alessi, 1983, Barzel, 1989, Furubotn and Pejovich, 1972)과 거래비용 경제학(transaction cost economics)적 시각(Coase, 1937, 1988, Williamson, 1985)이다. 이들은 공통적 영역을 가지지만 전자는 미시적 측면에서 소유구조와 그의 경제 행동에 대한 함의를 강조하나 후자는 관계적(relational) 또는 불완전 계약 개념에 중점을 둔다. 신제도학파와 관련되는 또 다른 접근법인 대리이론(Jensen, Meckling, 1976)은 사전적인 유인 동조화(incentive alignment)를 위한 최적 계약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 거래비용경제학은 사후적 지배조정구조에, 그리고 재산권 이론은 사전적인 제도상의 조정을 강조한다. 또한 신고전파이론이 기업을 생산함수를 가진 법적 실체로 보고 경영자는 완전 정보와 합리성 하에서 기업의 현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데 비해 대리이론은 기업을 정보 불균형과 자기 이익 추구 하에서의 생산과 관련된 계약의 집합으로 보며 대리인에 대한 규율을 중시한다. 두 이론 모두 기업을 법적 실체로 인식함에 따라 인적, 물리적 실체인 시설, 숙련, 학습과 그에 따른 동태적인 조직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편 거래비용이론이 거래를 분석 단위로 보고,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자산특유성, 제한합리성 및 기회주의 하에서의 정태적인 효율적 경제조직을 분석하는데 반해 기업진화론(Chandler, 1992, Nelson, Winter, 1982)은 교환거래 대신 생산의 주요 요소인 물적, 인적 자산을 분석 단위로 하며 조직상의 학습 및 시설과 숙련의 특유성이 기업의 동태적인 성장과 변화에 미치는 의미를 중시한다.

그러나 신제도학파적인 계약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조직(기업)이론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은 Williamson(1991)이다. 그는 우선 경제조직의 분류를 기술적 측면과 계약적 측면으로 구분하되 후자에 중점을 두었다. 전자의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완전경쟁 시장 하에서 생산함수로서의 신고전파적인 기업이론, 기술과 생산에 중점을 둔 진화론적 경제학 그리고 전통적인 경영자기업이론 등이 포함되었다. 후자의 경우 경제조직은 제도적 입장에서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조정으로 구분되며 다시 제도적 환경은 公的 환경인 공공 선택 이론과 私的인 재산권 이론으로 분류되고 제도적 조정은 사전적인 완전계약을 전제로 하는 대리이론과 불완전 계약하에서 사후적 조정을 중시하는 거래비용경제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舊제도학파의 관심이 신고전파의 정태적 균형보다는 동태적, 진화론적 시각에서 변화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음을 상

기할 때 진화론적 경제학의 입장은 舊 제도학과적 입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아래 <그림 3-1>과 같이 신제도학과적의 미시적인 기업이론의 체계에 보완적으로 기업 진화론을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3-1> 제도와 기업이론의 체계



자료: Williamson(1990)의 체계를 상술한 바와 같이 조정한 것임.

3. 1. 1. 재산권경제학적 기업이론

재산권경제학은 제도로서의 재산권구조가 자원의 배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는 경제분석으로서 여러 제도간의 거래비용 및 유인구조차이를 평가하고 제도의 상대적비용을 고려하려는 틀이다. 재산권 구조는 재산권의 체계 또는 이와 관련된 경제, 사회적 관계의 집합으로서 희소 자원의 사용, 소득, 이전에 대한 개인의 권리인 재산권을 지배하는 법적 제약, 관습, 기타 사회적 관행으로 구성되며 특정 자원의 이용에 관한 권한을 특정 개인에게 할당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한다. 특정 재산권 체계의 설정과 시행은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내생적으로 변화되지만 사회내의 개인의 선호, 이데올로기, 압력단체, 정치현실에 의해서 외생적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재산권 구조는 정보 획득, 계약 협의 및 시행 비용 등의 거래비용과

상호작용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사적 재산권이 존재하고 거래비용이 없다면 모든 권리는 충분히 정의되고 배분 및 시행된다. 그러나 재산권 체계의 설정, 감시 및 시행에 비용이 든다면 대안 선택을 위한 평가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특정한 제도적 조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권 구조가 개인의 기회 집합과 거래비용 구조에 영향을 주는 한 재산권의 체계와 거래비용의 변화는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재산권의 성격과 관련하여 개인의 결정에 의해 특정 계약에 내재되는 미시적인 재산권과, 계약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사회의 집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확립된 제도에 내재된 거시적인 재산권은 구분되어야 한다. 전자는 기존 제도 내에서 개발, 채택되는 계약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미시적 입장에서의 특정 계약이나 제도적 장치의 성격과 관련되나 후자는 제도 자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사회내의 재산권의 정의와 배분 및 지대추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미시적 재산권이론은 주로 현재의 조직구조와 거래비용 하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대응을 고찰하고 조직내에서 그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업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는 기업내의 상이한 소유권 구조의 함의, 그와 관련된 거래비용 및 적정유인 계약의 측면뿐 아니라, 팀 내에서의 도덕적 위해(moral hazard) 문제, 기업의 잔여 통제권의 소유 문제 등과 관련하여 연구된 바 있다. 특히 기업 내부에 있어서 계약 내용 및 소득의 형태(화폐적, 비화폐적) 등 재산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소유권 보유자의 감시 유인과 소유권의 희석화(attenuation)정도가 변화되므로 이를 분석함으로써 기업 행동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통적 자본가(소유경영자)기업과 현대 기업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는 기업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소유자가 기업의 수익에 대한 권리와 잔여 소득권, 팀 구성원의 고용 및 해고권, 양도권 등 그 기업의 재산권 묶음을 보유한다. 소유경영자는 제도적 유인 장치내에서 재산권에 따른 행동을 결정하고 의사 결정자로서 구성원의 감시, 감독, 측정 유인을 가지며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원의 최적 이용을 시도한다. 한편 후자의 현대 기업의 경우는 유한책임 제도 하에서 거래 가능한 소규모 지분에 의해 장기적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하나 소유가 분산되면 감시비용이 커지고 경영자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 통제력이 감소된다. 따라서 현대기업 주주의 경우 전통적인 소유경영자 기업의 주주와 재산권 묶음상 차이가 발생되고 소유권이 희석될 뿐 아니라, 거래비용의 존재하에서 경영자가 자기이익을 추구함에 따라 기업의 잠재이익과 실제이익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내 소득의 비효율적 재배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같은 재산권 접근은 거래비용, 생산비용, 그리고 재산권 할당에 영향을 주는 동태적인 혁신요소와 상관적으로 고찰됨으로서 기업 행동에 대한 실증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과 거래에 기초함에 따른 한계와 기업내 재산권 구조 자체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취약함이 지적될 수 있다.

한편 거시적인 재산권이론의 일반적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법규는 재산권 보유자의 행동과 기대에 영향을 주되 경쟁 환경하에서 재산권은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재산권의 특정화가 심화된다. 특히 사적 재산권이 강력하면 소유자의 경제 계산이 더 분명해지고 기회비용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나 거래비용이 높으면 재산권 할당, 시행, 가격 결정이 어려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 발전 등에 의해 거래비용의 감축이 가능해지면 재산권의 특정화와 계산의 정확성이 증대되고 그에 따라 재화 가치가 상승하며 자원의 이용과 산출 내용이 변경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재산권구조의 변화는 제도 변화의 이론으로서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 요소에 관한 이론의 미흡 때문에 향후 연구를 요하는 부분이다.

3. 1. 2. 거래비용경제학적 기업이론

거래비용경제학은 거래를 분석 단위로 하며 거래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여러 계약 관계간의 유효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존재 근거, 시장과 위계(hierarchies:기업) 및 기타 복합 형태(hybrid form) 등 다양한 거래의 지배조정구조를 설명하는 신제도학과 경제학의 일부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제도학과 경제학은 제도가 중요하며 분석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 환경과 제도적 조정으로 구분한다. 거래비용경제학은 지배조정구조라는 제도적 조정과 관련된 분야로서 다양한 경제 조직의 설명과 관련하여 시장, 위계(기업), 복합 형태를 경제활동의 대표적인 지배조정 수단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상의 특징의 다양성과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된 지배조정구조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거래를 거래비용 효율적인 적정 지배조정구조에 대응, 할당하는 것이다. 거래비용경제학은 기본 요소를 인간 행동상의 가정과 거래의 내재적 차원으로 보며 인간 행동상의 특징은 인지 능력(합리성), 동기 부여, 자아와 사회에 대한 관심(존엄성)으로 구성되고, 합리성 개념은 포괄계약과 관련되는 극대화 개념,

Simon의 제한합리성, 그리고 과정 또는 유기적 합리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되 제한합리성을 강조한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세가지 수준의 자기 이익 추구, 즉 사전(逆의 選擇) 및 사후(道德的 危害)적 기회주의, 단순한 형태의 기회주의, 복종으로 구분하되 첫번째를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는 계산된 노력에 의한 기회주의로서, 불완전할 뿐 아니라 왜곡된 정보의 공시도 포함하므로 불확실성의 원천을 구성하고 경제조직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거래의 효율적 조직화와 관련된 거래의 내재적 차원에서는 거래에 차이를 주는 차원을 자산 특유성, 불확실성, 거래 빈도(frequency)로 구분한다. 자산 특유성은 특정 거래만을 위하여 행해진 내구적 투자에 의해 생성되는 의존성에 따른 것이다. 그 투자의 기회비용은 현재의 거래 관계를 제외한 차선의 대안의 경우 매우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업 특유의 자산은 재배치가 어려워(nonredeployable) 잔존 가치가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거래의 지속이 중요하므로 이 거래를 상대의 기회주의적 행동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계약적, 조직적 장치가 필요해진다. 불확실성은 제한합리성에 따른 예측 한계와 기회주의에 따른 전략적 행동 때문에 특히 중요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되는 지배조정구조의 선택이 중요하게 된다. 빈도는 거래가 재발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대규모 반복 거래의 경우 기회주의에 따른 거래비용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게 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본다.

이 같은 논리 하에서 거래비용 접근은 기업의 존재 근거, 범위, 수직 통합, 효율적인 기업 내부 구조, 거래비용 감축을 위한 효율적 지배조정구조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거래비용 개념이 모호하고 그의 관찰 및 측정상 어려움이 있으며 자산의 특유성 측정도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거래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기업 형태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논거가 불충분하며, 인간 행동상의 기회주의보다는 계약의 완전성 여부와 관계되는 구조적 불확실성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기업은 그의 습관, 전통, 루틴(routine)속에서 숙련, 기술, 정보를 저장한 집합체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아니라 계약 집합체 차원을 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권력(power)개념을 도외시키고 있으며 정태적 이론이라는 점, 기업간의 관계(relational contract)적 계약과 네트워크의 형성에는 비계약적 요소인 신뢰와 협동의 생성이 거래비용 이외에 기업 효율성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서 거래비용경제학의 한계가 노정되지만 그 이론의 틀과 함의는 향후의 발전에 따라 잠재적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3. 1. 3. 대리이론적 기업이론

신제도학과 경제학은 계약에 관한 효율성 측면에서의 접근과 관련하여 계약의 사전적 유인 동조화(ex ante incentive alignment)와 거래비용 절감 측면과 관련된다. 대리이론은 특히 계약의 사전적인 유인 동조화와 관련되며 게임 규칙인 제도적 환경 내에서 재산권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가를 다루는 것으로써 모든 형태의 교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인과 대리인 등 당사자들은 정보 불균형 하에서 이해 관계상의 갈등을 일으키므로, 모든 적정 계약 행위를 사전적으로 유인 동조화 시키는데 대리이론의 초점이 있다. 대리인은 그들의 특징과 성과를 측정하고 계약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을 이용하여 나태와 기회주의적 행동을 시도한다. 대리이론 중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은 위계적인 관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선호구조, 불확실성의 성격, 환경의 정보 구조가 미치는 효과를 모형화하되 위험 부담과 최적 계약의 형태, 균형 계약의 후생적 효과 비교를 강조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복잡한 계약의 설정과 관련하여 이에 상응하는 인식 능력을 가짐을 전제함으로써 무제한의 합리성을 가정한다. 따라서 재산권 이론과는 달리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의무를 완전히 특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배분될 자원에 대한 잔여 통제권의不在를 가정한다. 실증적 대리 이론(positive agency theory)은 계약 환경, 감시 및 확증기술이 생존 계약과 조직 형태에 미치는 효과의 모형화에 초점을 두되 자본집약도, 자산의 특유성, 정보비용, 자본시장, 내 외부 노동시장 등을 계약 형태 결정에 있어서 감시 및 확증 비용과 상호 작용하는 계약 환경의 요소들로 파악한다.

신제도학과 경제학은 특히 후자인 실증적 대리이론과 관련을 가지며 여기서는 정보비용, 환경, 감시, 확증기술 등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다양한 시장에서의 경쟁의 존재가 대리비용의 감축, 기회주의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가져와 대리인의 성실을 유인하고 나태를 억제한다 해도 주인의 경우 그들간의 행동 조정을 위한 거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므로 제도적인 조정이 중요하게 된다. 대리이론은 재산권, 거래비용개념과 상관적으로 기업의 행위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나 상이한 제도하에서 대리 문제의 가능성과 다양성, 그리고 신뢰와 협동의 존재하에서의 대리 문제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 요구된다. Brennan(1994)은 대리이론에서 자기 이익 추구하고

합리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보고 비합리적 행동, 이기심의 억제와 자비로운 행동도 인간본성의 일부라고 봄으로써 대리이론적 접근의 본질에 도전한 바 있다. 특히 기회주의와 신뢰가 문화적 특성과 관련되는지, 한계주의적인 합리적 계산의 결과인지,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가정의 설정은 무엇인지가 향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3. 1. 4. 기업진화론

기업진화론은 슈페터와 Penrose(1959)의 성장 개념에 기초하여 Nelson과 Winter(1982)에 의해 전개되어 왔으며 최근 Chandler(1992)는 교환(거래)보다는 생산을 중시하면서 전략, 구조, 핵심 능력이라는 기업 특성에 기초한 동태적인 기업 능력 이론을 발전시켰다. 기업진화론은 생물학에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원용한 것으로서 경제적 자연도태(적자생존)의 개념에 따라 조직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점진적인 유전학적 설명을 시도한다. 이들은 현실에서의 관찰 가능한 규칙성은 정태적인 문제에 대한 解라기 보다는 과거의 조건에 따라 동태적 과정에 의해 진화적으로 생성된 것이라는 Lamarck적인 입장을 취하며 이미 획득된 특성의 상속과 역경의 자극에 의한 적절한 변동을 모두 고려한다. 특히 시장환경에서 기업의 능력과 활동에 내재하는 특성이 시간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면서 수요나 요소 공급 조건의 변화, 혁신에 의한 경제 변화와 관련된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기술과 경제조직의 복잡한 누적적 변화 이해에 유용한 틀이다.

Nelson과 Winter(1982)는 기업행동이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나, 외생적으로 주어진 선택집합에 근거하여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측면보다는 시간 경과에 따라 시장에서 능력있는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을 제거하는 경제적 자연 도태 측면을 중시한다. 주류 경제학의 기본 모형은 기업이 외부 시장조건과 내부의 자본스토크 조건하에서 극대화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기업 행동 규칙을 연역하며, 균형조건을 부과하여 결론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적 모형은 전체의 목적함수 하에서 선택 집합의 제약 하에 시도되는 극대화 선택 메카니즘을 거부한다. 기업의 주요 기술, 전략, 절차 등 모든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동 유형을 루틴으로 보되 이는 생물학상의 유전자 기능을 수행하며 유기체의 특징 및 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상속 가능한 것이라고 파악한다. 어느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루틴은

역사적 산물이므로 그것이 형성된 진화적 과정을 이해해야 그 특성을 알게 된다고 본다. 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루틴에 따르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은 탐색(search)으로 모형화된다. 탐색은 생물 진화론의 돌연 변이 개념으로서 기업의 기존 루틴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되 기업은 일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루틴의 수정, 생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행동 유형과 시장의 성과는 시간 경과에 따라 동태적, 진화적인 마코프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한편 Chandler(1992)는 기업의 특성을 첫째, 계약국면에서의 법적 실체, 둘째, 조정 및 감시측면에서의 관리적 실체, 셋째, 물리적 시설 및 학습된 숙련과 유동자본의 풀(pool), 그리고 넷째, 이익 목적으로 본다. 기업조직의 능력은 과점적인 경쟁 하에서의 누적적 학습과 규모의 경제에 의해 생성되어 경쟁 우위와 진입 장벽을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이익의 원천 및 지속적 성장의 기초를 형성한다. 조직 능력은 특히 신제품의 상업화와 관련된 지식취득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생산 공정 및 규모의 증대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이나 고객 욕구에 관한 지식의 취득, 서비스를 위한 제품과 공정의 변경, 원자재의 이용 가능성 파악, 노동자와 경영자의 선발 및 훈련 방법상의 지식 확보를 통해 생긴다. 이러한 조직의 능력은 기업내 조직상의 위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위부문에서는 전략적 활동 등의 결정 규칙측면에서 생성되고 하위 부문에서는 조직의 기능별 활동과 숙련 및 조정 측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서 기업내 시너지효과의 원천이 된다. 또한 이러한 기업 특유의 지식은 실물적인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시설이나 제품 및 공정에 특유한 인적 숙련 부문에서, 시행착오와 피드백 및 평가를 통한 학습에 의하여 개발되는 것으로서 경쟁력과 수익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Chandler는 거래비용, 대리비용 등의 감축보다는 생산, 유통, 마케팅 등 경영기능면에서 학습과 현제품 및 공정 개선에 의한 비교 우위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Nelson(1991)은 최근 진화론적 맥락에 기초하여 전략-구조-핵심능력의 체계하에 혁신을 중심으로 한 동태적인 기업 능력 이론을 제시하고, 기업의 성과는 핵심적 조직 능력과 관련된 조직내의 루틴에 좌우된다고 본다.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은 R&D 상의 핵심 능력을 요하며 이는 숙련, 경험, R&D지식, R&D와 생산 및 마케팅간의 연계 등의 일관성 있는 추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조직되고 지배조정되는 방식의 합리화와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견 체계 확립 및 미래의 핵심 능력 설정을 위한 일관성 있는 전

락을 요한다고 본다. 이는 진화론적 입장에서 볼 때, 상황의 복잡성에 비추어 신고전파적인 인식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의 전략, 구조 및 핵심 능력은 상황에 동태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같은 실물적 측면의 강조는 제도와 계약의 성격이 부과하는 현실적 한계와 제도상의 비용 효율성을 경시하는 오류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2.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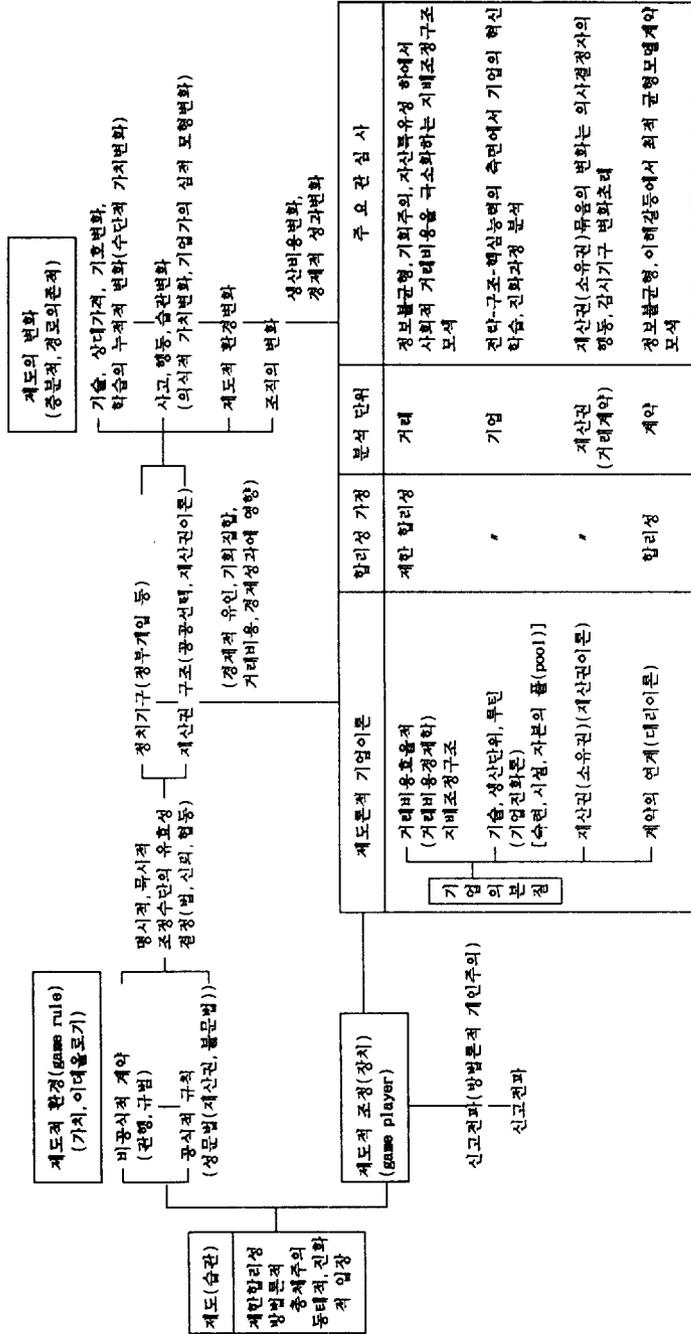
3. 2. 1.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의 거시적 체계와 특징

어느 특정 시점에 완전한 기업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동태적인 틀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 이를 위하여는 기업이론의 단순한 종합이 아니고 내재적 일관성과 상관성을 고려한 통합적 체계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인 주류 경제학에서의 기업이론은 방법론상 개인주의와 합리성 및 시장개념에 근거하였으므로 개인의 행동은 원자화되어 정태적이고 기계론적인 이론의 전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을 제도적 존재로 이해하며 인간 행동상에 있어서의 제한합리성과 기회주의 성향을 특징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변화와 기업의 변화를 상관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舊제도 및 신제도학파적 사고를 도입함으로써 동태적이고 총체적이며 보다 현실적인 기업이론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고 있다. 특히 North에 의한 제도이론과 제도 변화 이론을 원용한 Williamson의 경제조직 이론 분류는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을 체계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보다 통합된 기업이론 형성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내생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틀이 아직 완결되고 있지 않은 점이 현재까지 전개된 제도 이론의 한계이기는 하나 제도내의 경제 조직체인 기업의 내생적인 행동의 생성 및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신제도학파의 기업이론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기업 실체에 대한 포괄적 설명에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틀은 기업의 제도적 환경과 진화적 동태성, 기업의 본질에 대한 계약, 거래, 기술적 생산 단위의 개념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전개되어 온 제도와 제도의 변화를 포함시켜 총체적으로 체계화시켜 도시하여 보면 <그림 3-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론간의 적절한 비교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과 인간 행동상의 가정, 주요 개

념, 거래비용과 신뢰, 동태성 고려 여부, 기업간 관계에의 기여 개념 등 주요 차원을 분석하여 보면 <표 3-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재산권이론은 계약적 관점에서 거래 대상을 재산권으로 보고 불확실성 하에서 재산권의 유지, 희석화를 중시한다. 외생적인 제도적 재산권구조 하에서의 기업내 소유권과 관련된 이 연구는 소유와 경영 분리, 불확실성과 기회주의, 거래비용 하에서의 재산권의 적절한 유지, 행사, 교환의 문제를 다룬다. 대리이론은 기업의 실물적 차원의 특성인 물리적 시설이나, 인적인 숙련 등 실물 자본에 대한 측면을 간과하고 단지 기업을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실체로 보면서 정보 불균형, 이해 갈등을 고려한 규율과 최적균형 계약을 중시한다. 이에 비하여 거래비용이론은 제한합리성과 기회주의 하에서 생산 시설과 숙련 등의 특유성 및 관계성을 고려하여 기업내부화에 따른 거래 관계상의 특유성을 고려한 거래비용 절감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래비용이론은 시장과의 상대적 비교의 시각에 중점을 둬으로써 인적, 물적 요소의 결합적 실체로서의 기업의 본질적 생존, 성장 및 변화 자체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대리 이론에 비해 자산 특유성에 의한 확장을 시도했으나 유기적 실체로서의 기업 자체에 대한 인식면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비해 기업진화론은 제한합리성이나 기회주의 등 인적 요소상의 특성보다는 기업, 인적 및 물적 자산 등 조직 능력의 특유한 성격이 기업 본질과 기업 행동 설명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환, 거래와 계약 개념보다는 생산을 중시하고 기업이 소유자, 고객, 투입공급자와 관계하는 양상을 조직의 루틴 또는 숙련이라고 보며 이의 진화적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자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거나 계약과 거래만에 중점을 둔다면 동태적인 기업의 생존,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갖지 못하므로 조직 능력으로서의 기업 실체를 핵심으로하여 기업의 진화적 성장을 설명하는 기업진화론은 다른 기업이론에 대한 보완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 제도이론과 신제도화파적 기업이론간의 통합적 관계



제도의 변화
(증분적, 경로의존적)

- 기술, 상대가격, 기호변화, 학습의 누적적 변화(수단적 가치변화)
- 사고, 행동, 습관변화 (의식적 가치변화, 기업가의 심적 모험변화)
- 제도적 환경변화
- 조직의 변화

생산비용변화, 경제적 성과변화

제도론적 기업이론	합리성 가정	분석 단위	주요 관심사
기업 본질 거래비용중용적 (거래비용중용제한) 지배구조 - 기술, 생산단위, 투입 (기업진화론) [속연, 시설, 자본의 풀(pool)] - 재산권(소유권)(재산권이론) - 계약의 연계(대리이론)	제한 합리성	거래 기업 재산권 (거래계약) 계약	정보불균형, 기회주의, 지식특유성 하에서 사회적 거래비용을 극소화하는 지배구조 모색 진다-구조-핵심능력의 측면에서 기업의 혁신 학습, 진화과정 분석 재산권(소유권)문제의 변화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감시기구 변화조례 정보불균형, 이해갈등에서 최적 균형모형계약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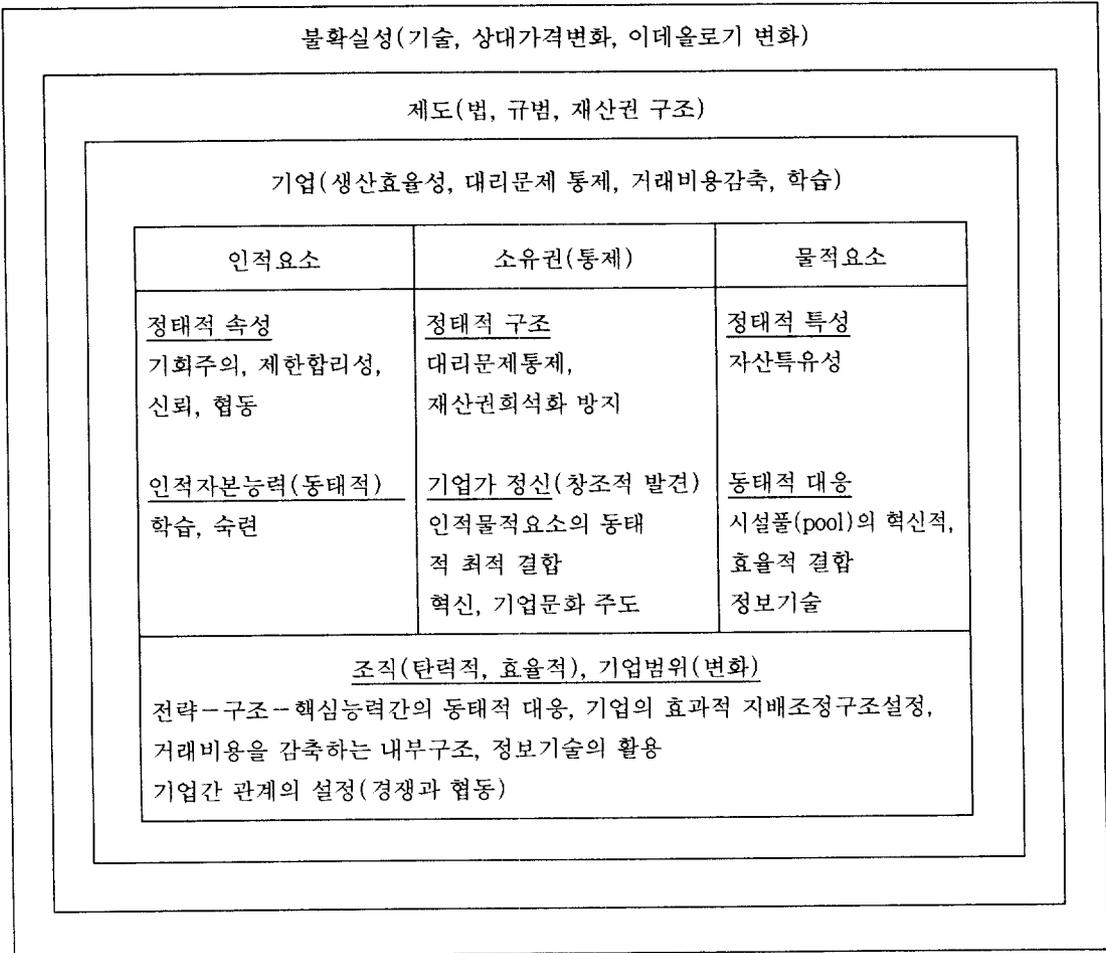
〈표 3-1〉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 비교

기업이론	환경적 주요 고려사항		인간 행동상 가정		기업의 주요 특성 (주요개념)	거래비용의 명시적 고려	신뢰, 협동 고려	동태성 고려	계약적 관점	기업간 관계이해의 기여개념
	불확실성 정도	정보불균형	제한합리성	기회주의						
재산권이론	0	0	0	0	(재산권 희석화방지) 소유구조 감시체계	0			0	계약내용의 희석화
거래비용 이론	0	0	0	0	(지배조정구조, 거래비용감축) 자산특유성 이사회구조(감시) 조직구조	0		(단, 제도 변화실명 은 제외)	0	계약적 지배조정구조, 거래비용, 수직통합, 통합해제
대리이론	0	0	(P-A 이론) (실증적 대리이론) 0	0	(유인동조화, 대리문제 감축) 자산특유성 자본집약도 감시, 확충제도				0	권력에 따른 대리문제 분계
기업진화론	0	0			(핵심능력, 동태적 진화) 학습, 숙련 전략 구조 시설, 규모		0	0		진화적 조직형태 학습, 시너지

3. 2. 2. 통합적 기업이론 모형과 요소의 체계

통합적 기업이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상호 내적 일관성과 보완성을 가지며 동태적 과정 설명에 적합하도록 체계화되거나 이러한 차원에 내재하는 통합적 개념의 도출을 필요로 하며 이는 향후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신제도학파도 방법론적인 개인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경제 행위자의 원자화라는 제약을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인 내재적 접근(embeddedness approach)에 의해 비판되고 있다. 이 접근은 경제 행위자를 사회적 영향력 하에서 타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라고 봄으로써 인간을 제도적 인간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기업 이해에 있어서 거래비용경제학의 한계가 나타나므로 시장과 위계의 중간적 형태나 기업간 관계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인간의 성향에 기회주의 외에 충성심과 신뢰 개념을 도입한 보다 폭넓은 기업이론의 모색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 충성심 자체도 경제학적인 분석 틀을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일본, 독일, Anglo-Saxon국, 동아시아 유교 국가간의 기업 시스템의 비교를 위한 연구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신제도학과 경제학적 기업이론들이 신고전파의 비현실성과 단순성을 극복하면서 상호 보완적이면서 다 차원적이고 동태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 향후 보다 통합적인 기업이론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 요소를 좀 더 체계화시킨다면 <그림 3-3>처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기업은 불확실성하에 있고 이는 기술, 상대가격 변화, 이데올로기 변화에 의해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 제도는 불확실성 하에서 인간 행동을 구조화시키며 이는 공식적 규칙(규범, 법, 재산권구조)과 비공식적 제약으로 구성된다. 제도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의 요소들과 관련을 가지면서 변화되고 제도내의 내생적 조직인 기업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기업을 제도내의 내생적 생성물이라고 보는 경우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는 실물적 측면에서 생산 효율성과 동태적인 학습이 중요하게 되며 정태적으로는 인간 행동 가정에 따른 거래비용 감축 및 대리비용 통제와 이에 적합한 조직 구조의 형성이 필요하다. 기업의 내부에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가 존재하되 이 두 요소를 결합시키는 주체로서의 소유자나 그를 대변하는 경영자가 창조적이고 동태적인 새로운 기회의 모색이라는 기업가 정신에 의해 이 요소들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인적 요소의 정태적 특성은 제한합리성과 기회주의라는 거래비용경제학 및 대리

<그림 3-3> 통합적 기업이론 모형을 위한 요소 체계



이론의 가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동태적으로는 학습과 숙련 및 개발 능력을 지니는 인간의 측면을 연계시킬 수 있다. 물적 요소의 정태적 특징은 자산 특유성이라는 거래비용 경제학의 주요 개념으로서 기업의 존재 범위와 수직 통합의 결정 요인을 들 수 있으며 동태적 요소로는 R & D 와 기술 혁신에 의한 새로운 물적 요소의 생성 및 결합 측면과 정보 기술에 의한 효율성 증진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적, 물적 요소가 소유 통제자에 의해 동태적으로 결합, 생성,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이며 그는 기업내 이데올로기인 문화적 측면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요소는 체계화되어야 하며 동태적 측면에서 진

화론적인 전략, 구조, 핵심 능력간의 동태적 연계와, 기업의 효율적 지배조정구조, 거래비용을 낮추는 기업의 내부 구조(예 : M형조직), 정보 기술을 활용한 업무 처리 과정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거래비용 효율적이고 동태적인 기업간 관계의 모색을 통해 기업의 범위의 재 설정과 협력을 통한 불확실성 감축 및 전략적 이득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기업이론 모형은 향후 보다 체계화되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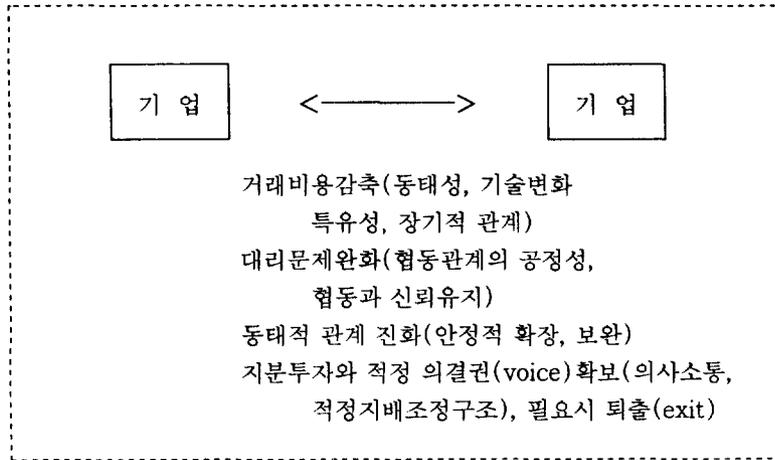
IV.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의 신제도학파적 고찰

오늘날의 기업은 신제도학파이론에서 당초 제시했던 시장, 위계의 구분을 넘어 다양한 명시적, 묵시적 계약과 경쟁 및 신뢰 관계에 기초한 기업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집단, 하청 관계, 전략적 제휴등의 상호 협력 관계의 측면에서 보듯이, 기업의 행동은 개별 기업만의 행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기업간 관계의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동태적인 환경 변화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기업간 상호 작용과 관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체적 기업간 관계 자체도 또 하나의 동태적인 유사 기업(quasi-firm)의 형태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기업간 관계도 그 본질상 기업이론의 다양한 틀 내에서 생존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존재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그림 4-1> 과 같이 기업이론과 일관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업간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신고전파적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신제도학파적인 관점과 나아가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의해 보다 잘 설명될 수 있으므로 최근 이에 관한 논의가 증대되어 왔다. 기업간 관계는 시장적, 비개성적, 비반복적 경쟁 관계만도 아니며 위계처럼 독자성을 잃은 통합된 내부적, 권위적 명령 관계도 아닌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진전되고 있는 기업간의 관계는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명시적, 묵시적 장 단기 계약, 협력, 신뢰, 경쟁의 관계가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혼합된 네트워크관계로서 그 자체가 생존 가능한 지배조정구조의 형태이다. 특히 불확실성과 경쟁 및 변동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간 관계는 향후 보다 탄력적인 네트워크형태를 지향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며 권위적 지

위와 자본 관계에 의해 유지되기보다는 상호성, 창조성, 협동, 대응성, 기술적 보완성에 의해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1〉 유사 기업 형태로서의 네트워크의 존재양태



사회학에서의 사회적 네트워크개념은 사회의 행위자들간의 연결된 사회적 교환관계의 집합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기업간 관계에 관한 구조적 접근은 자원 의존성(resource dependence)과 사회 계급 관점(social class view)에서 전개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조직들의 시스템을 중시하고 개별기업보다는 산업과 조직간 네트워크를 분석단위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네트워크 이론이 대두되었다. 한편 신제도학과내에 있어서 거래비용경제학 또는 조직경제학에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은 Coase(1937,1988), Williamson(1985,1990,1991) 등의 주요 개념인 지배조정구조로서의 시장과 위계(hierarchies)의 극단성을 보완하는 중간적 개념으로 파악되었으며 일부 주장자들은 독립적 형태로서의 네트워크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Bradach, Eccles 1989, Collin, Larsson, 1993, Jarrillo, 1988, Johanson, Mattson, 1987, Powell, 1990, Thorelli, 1986 등). 나아가 기업간 관계를 거래비용경제학과 네트워크가 상호 代替적으로 설명한다고 보는 입장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업간 네트워크에 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전개되어온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후 신제도학과

적인 입장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4. 1.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

4. 1. 1. 사회학적 입장에서의 자원 의존성과 사회 계급론 측면에서의 접근

조직 내부의 요인에만 기초한 전통적 기업 이론에 한계가 나타나고 기업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기업간 관계의 구조속에서 시장과 비시장(nonmarket) 관계를 고려하여 기업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학적 입장에서 기업간 관계의 기본적인 성격을 자원 의존성과 사회 계급에 두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자원 의존 이론(Pfeffer, Salancik, 1978)에 따르면 기업간 관계는 조직간의 의존성과 제약의 유형의 산물이며 자원의 상호 의존성이 기업간의 상호 작용과 갈등의 주요 원천이다. 왜냐하면 조직이 개방 시스템 하에 있고 자원의 획득과 산출물의 처분을 위하여 환경과의 교환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조직간에는 권력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조직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큰 변화가 없는 한 이 관계에서 형성되는 상호 작용은 지속적 성격을 갖게 된다. 그들에 의하면 기업간 관계 이해에 있어서의 기본 단위는 조직이며, 이 조직은 자율적이 아니라 다른 조직과의 상호 의존성의 네트워크에 의해 제약된다. 또한 상호 의존적인 조직들의 행동에 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의존성의 유형에 따라 조직간 및 조직내에 권력이 생성되며 외부의 충격에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행위자가 더 많은 권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들은 기업간의 의존성을, 직접적인 산출과 투입 연계간의 공생적(symbiotic) 관계와, 동일한 활동 영역에서의 의존적 경쟁(commensalistic) 관계로 구분하며, 그 관계에서의 거래 유형을 개념화하고 의존성을 측정한다. 한편 사회 계급적 접근에 의하면 기업은 지배적인 사회적 계급의 도구이며 엘리트 계급이 상호 작용하면서 공동적 접근을 개발하는 장치로써 그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이며, 네트워크연계에 의해 기업간의 이해 갈등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즉 기업과 가족 집단은 자신을 응집시키고 단일의 집단으로 조직화하는 메카니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계내에는 편협한 이해 갈등 관계를 초월하는 공통의 이익 관계가 존재하며 기업 엘리트 집단의 사회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본다.

4. 1. 2. 기업간 네트워크에 대한 경제 조직적 측면에서의 고찰

4. 1. 2. 1. 네트워크에 관한 諸 개념

경제 이론면에서 네트워크에 관한 관심은 당초 마케팅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산업의 효율성, 발전, 통제 측면에서 공급 기업과 고객 기업간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영업적 관계가 중시되면서 산업 네트워크개념이 전개되어 왔다. 특히 불확실성과 경쟁의 격화가 협동적 행동의 중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협동과 경쟁이라는 기업 행동의 국면을 양립 가능하고 보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이론의 틀이 연구되어 왔다. 산업네트워크는 행위자와 그들간의 관계로 구성되며 활동, 자원 및 그들간의 의존성으로 구성되는 기업간 관계의 한 양태이다. 수직통합과는 달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네트워크 밖의 기업에 대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형성되는 것으로 기업간 관계, 구조, 과정, 지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일반적으로 시장, 위계를 대체하는 관계나 구조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왔다. 네트워크는, 주장자들에 따라, 공통 목적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조직들의 집단내 관계의 전체적 유형자체, 구속적(bonding) 관계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연계되는 느슨히 연결된 많은 조직, 그리고 둘 이상의 연계된 교환 관계라는 정의가 있어 왔으며 후자로 갈수록 포괄적 성격을 띄고, 가격기구나 위계적 명령과는 달리 신뢰에 기초한 상호적 적응을 통한 조정에 특징이 놓여진다.

4. 1. 2. 2. 네트워크의 생성 전제와 중요 요소

네트워크의 생성을 수직통합과 代替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입장에 따르면, 어떤 특정의 행동(예:생산)을 기업의 내부 활동으로 처리할 것인가 다른 기업에 맡겨 처리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 대상은 총비용이다(Jarillo,1988). 즉 내부 생산비용은 TC이고 외부 생산에 의한 조달 비용은 외부자에 의한 생산비용(EP)과 거래비용(IC)과의 합이라고 볼 때 $EP+IC > TC$ 면 수직통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나 IC가 낮아지거나 기술적 전문화에 의해 $EP < TC$ 이고 관계상의 탄력성이 커지면 네트워크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통합의 해체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기보다는 거래상의 긴밀성 및 거래비용의 측면에서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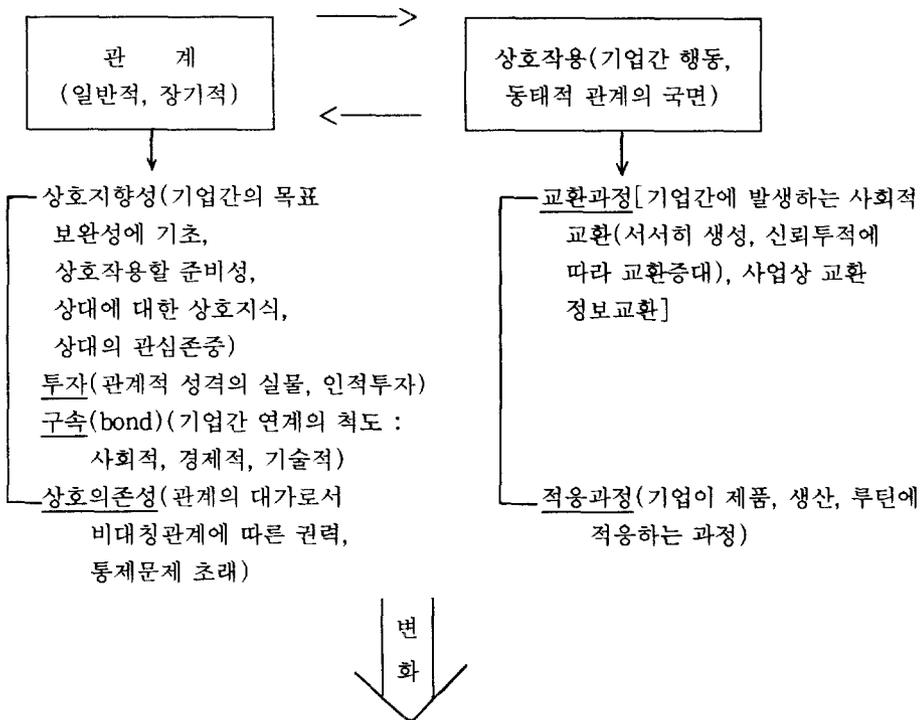
장 규율에 의한 EP의 통제 가능성과 핵심적 활동에의 전문화가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한다는 측면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본다.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의 참여가 장기적으로 각 기업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되 이를 위해서는 신뢰에 의한 정보 소통 증대와 감시 필요성의 감축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뢰의 생성을 위하여는 네트워크내에 가치와 동기의 일체감, 기회주의에 부과되는 비용의 압력, 및 평판 중시, 그리고 장기적 관계 하에서의 개입(voice)의 중요성이 인지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학습과 조정이 용이해지고 결합적 가치 창출 가능성이 증대되면 네트워크의 안정적 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 자원에의 접근이 보장되고, 기업 내부에서 생산할 수 없는 주요 기술이나 무형 자산의 습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독립적 관계에 따른 거래비용을 고려하고도 이점이 있거나, 불확실성이 감축되고 정보에의 신속 접근이 가능해지며 신뢰성과 적응성이 형성되면, 네트워크 참여 동기는 증대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 요소로서 노하우, 정보에의 신속한 접근과 대응, 신뢰를 제시할 수 있다. 노하우는 암묵적(tacit)인 지식으로서 시장과 위계는 이러한 지식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나 수평적인 의사 소통 형태와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의 경우 지식과 능력의 교환을 더 용이하게 한다. 또한 기술적인 경쟁이 치열하여 협력에 의한 위험 감축, 비용 분담, 정보에의 신속 접근, 기호 변화에의 대응, 혁신 가능성이 중요시 되는 경우 수직통합이나 합병보다는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한 학습능력 증대와 탄력성 증가가 효과적일 수 있다.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경우에는 평판이 중시되고 참여 동기가 증대되어 기회주의가 억제되며 감시의 필요성이 감축되고 특히 참여자가 동질적이면 더욱 신뢰성이 생성되고 네트워크가 중시될 것이며 그의 형성이 촉진될 것이다.

4. 1. 2. 3. 네트워크내에서의 관계의 본질

기본적으로 교환 당사자인 기업들(행위자)은 어떤 활동이나 자원을 통제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행동하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기업과의 상호 작용에 따른 자원에의 접근이나 지식 획득을 중시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교환은 경제적 및 지식의 차원을 가지며 교환관계는 묵시적인 상호성을 띄면서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게 된다. 네트워크내에서는 교환 당

사자간의 교환과 생산비용의 감축, 지식의 개발 증진과 상호적 통제력 부여, 타기업에 대한 교량기능, 제 3자에 대한 공동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행위자간의 상호적 지향성(mutual orientation)과 동태적 연결이 시도되며 특히 동태적인 상황하에서 복잡성과 상호 의존성이 높으면 지속적 관계에 따라 생산성과 혁신능력이 제고되고 환경 통제가 용이하게 된다. 이 같은 논리에 기초한 Johanson 과 Mattson(1987)에 따르면 기업간 관계는 상호 지향성을 가지며 투자와 구속 관계에 의해서 강화되고 상호 의존적 성격을 띄며 그 관계의 동태적인 국면은 <그림 4-2>와 같이 교환 과정과 적응 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간 관계는 당사자간의 교환 과정을 통해 발생되며 그에 따른 적응은 기술적, 물류적, 관리적, 재무적, 지식

<그림 4-2> 기업간 관계와 상호 작용의 구조



갈등과 새로운 관계 모색

자료: Johanson과 Mattson(1987)에 기초함.

적 측면에서 경험과 지속적 대응 과정을 통해 발생된다. 기업간의 교환 관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 거래빈도, 복잡성, 규칙성면에서 적응할 이유도 높아진다. 적응 과정은 기업간의 구속을 강화시키고 상호 의존성을 높이며, 그에 따라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증대되고 그 과정에서 적정 보상을 위한 의견제시(voice)가 활용된다. 상호 작용 과정은 교환 당사자간의 적응을 창출하므로써 상호간 지식의 증대와 상호지향성이 생성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간 관계는 기업 상호간의 상호 지향성으로서 상호작용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확립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그들의 행동을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인지할 때 상호간 교환을 원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상호간 지식이 증대되므로 활동의 상호 의존성과 교환 관계간에는 순환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는 갈등과 협력간의 긴장이 존재하며 교환 과정이나 목표상 변화가 나타나면 갈등은 증대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2. 신제도학적 관점에서 본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

기업간 관계에 관하여는 신제도학적 기업이론중에서는 거래비용경제학적 접근이 거래비용 절감면에서 수직통합과, 시장과 위계간의 혼합형 지배조정구조를 모색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Williamson(1985)은 시장과 위계라는 배타적 양극단을 기준으로 그 중간에 혼합적인 거래 관계와 조직간 형태가 존재한다고 본다. 즉 거래빈도가 낮고 자산 특유성이 매우 낮으면 거래 주체간에 수직 통합 대신 중재 기구를 통한 시장 거래가 진전되고 거래 빈도가 높고 자산 특유성이 높으면 기회 주의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수직 통합이 발생하며 자산 특유성이 중간정도면 쌍방적 시장관계가 형성된다. 시장과 위계의 중간 영역은 관계적 계약으로서 안정적, 지속적이며 기회주의는 담보(hostage)성격의 유인장치에 의해 완화된다고 본다. 결국 이는 시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그것으로부터 거래비용을 고려한 진화적 형태가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관계에 있어서는 시장과 위계의 특성이 상호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시장, 위계의 단순한 혼합물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네트워크를 시장과 위계의 중간 형태로 볼 것인가 독립적인 조직 형태로 볼 것인가에 따라 거래비용 이론으로 설명할 것인가 네트워크 이론으로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의 네트워크현상을 신제도학파적인 논

리에서 고찰하는 입장을 가지고자 하므로 네트워크의 개념을 거래비용경제학의 틀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시장, 위계, 네트워크간의 비교를 시도한 이론들을 고찰한 후 거래비용경제학과 네트워크 이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4. 2. 1. 시장, 위계, 네트워크의 비교에 관한 제 견해

시장, 위계, 네트워크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도 내부적인 국내조정 및 국가간 외부적 관계의 분석의 틀로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경제적 입장에서 거래비용경제학(TCE)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시장과 위계에 더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네트워크의 다양한 차원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제시된 견해를 요약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 2. 1. 1. 사회 경제적인 포괄적 조정 기구적인 입장

Frances, Levacic, Mitchell, Thompson(1991)은 현실적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정의 모형으로서 시장, 위계, 네트워크를 제시하고 이들의 거래에 대한 조정 방식과 비용 및 범위는 상이하며 각 조정 방식내에서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첫째, 시장은 각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에 의하여 사회전체의 이득을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조정 방식으로서 가격 중시와 소비자 선택권을 기초로 한 자원배분상의 주요 도구이며 유사시장(quasi-market)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본다. 둘째, 광의적 위계는 내부적 조직 형태와, 상이한 제도적, 조직적 단위간의 외부적 관계라는 두가지 관점을 가진다. 이는 규칙 등 관리적 수단에 의한 통제력 행사를 특징으로하며 중앙 집중적 계획 및 지표적(indicative)계획 수립, 수직 및 수평적 통합 개념을 내포하되 거래비용에 따라 경계조건이 달라진다. 셋째, 네트워크는 수평적인 기업간의 조직 형태로서 동등한 사회 행위자간의 비공식적 조정 및 관계, 신뢰(trust)와 충성(loyalty)에 기초한 협동적 운영을 특징으로 하되 조직내 및 조직간에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급속한 기술, 수요 및 시장 특성의 변화에 의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가격, 권위 등 전통적 조정 메카니즘이 약화됨에 따라 기업들이 핵심 활동에 집중하면서 통합조직의 해체와 하청 공급

네트워크생성, 재편성과 재조직에 따른 자율성 및 탄력성 증대, 관료적 방식 퇴조와 관련하여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협의로 보면 시장, 위계와 같은 차원에서 상이한 조정 기구로 볼 수 있지만 광의로 보면 시장, 위계도 현실적 의미에서는 광의의 네트워크 개념속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다.

4. 2. 1. 2. 거래자 간의 관계상의 특징에 따른 입장

Grabher(1994)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형태는 포괄적으로 볼 때 시장이나 위계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네개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상호성(reciprocity)으로서 네트워크내에서의 경제 거래는 이산적 교환이나 관리적 명령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에 따른 상호성의 맥락에서 연속적 거래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로 장기적인 상호 의존성으로써 시장의 이산적 교환은 독립성을 전제하며 기업내의 명령관계는 일방적인 의존성을 암시하나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적응 과정에 따른 상호 의존성과 관련된다. 상호 작용은 상호적인 지향성을 진전시켜 상호간의 지식증가, 의사소통 원활, 기회주의적 행동의 제한을 가져온다. 셋째로 느슨한 동반 관계로서 네트워크는 수직통합과는 달리 느슨한 동반 관계나 약한 연계에 따라 교환 당사자간 자율성이 부여되고 얽매이지 않으면서 상호 작용과 의사 소통상의 안정적 관계를 가져온다. 따라서 시장의 관계에서는 거래하기 어려운 지식 전파가 용이해지고 상호적 학습과 혁신에 유리한 조건을 생성한다. 느슨(loose)성은 환경변화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하고 오류의 누적을 예방하게 해준다. 넷째로는 권력으로써 상호성이 대칭성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네트워크내에서도 갈등과 협력의 양면이 존재하게 되어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더 강력한 당사자가 상호 의존성의 이용을 위한 제약과 기회의 틀을 짜게 되므로 일시적이라 하여도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특징들이 반드시 순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며 환경 변화가 매우 큰 경우 네트워크내의 동질성이 높다면 집단적 사고를 진전시켜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혁신 기회에 대한 인지를 제한하고 정보 해석상의 다양성을 차단하게 됨으로서 네트워크의 생존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4. 2. 1. 3. 독립적인 조정기구로서의 네트워크에 관한 입장

〈표 4-1〉 시장, 위계, 네트워크 비교

주요특성	시 장	위 계	네트워크
규범적 근거 의사소통수단	계약-재산권 가격	고용관계 일상루틴	보완적 강점 관계적 측면 (relation)
갈등해소법 탄력도 당사자간의 참여도	법원(사법기구) 高 低	명령(감독) 低 중~상	상호주의 규범(평판) 중간 중~상
풍토 행위자의 선호선택	정확성, 의심 독립적	공식적, 관료적 의존적(종속적)	개방적, 상호이익 상호의존적
혼합적 성격	반복거래 (위계적 문서로 서의 계약) 의사소통수단	비공식적 조직 (시장유사특성, 이익센터, 이전가격)	지위, 위계 (복수의 당사자 공식적 규칙)

자료: Powell(1990).

Powell(1990)에 따르면 〈표 4-1〉과 같이 시장은 자기의 이익 추구상의 합리성, 일관성을 지니는 자동 조정기구로서 자기 이익 추구하고 비협동, 비개성적, 이타적인 성격 부재 등의 특징을 가지므로 유인 효과는 크나 학습, 기술 이전면에서는 열등하다. 위계는 권위적 명령, 전문화, 명백한 권한 체계, 공식적 의사결정 절차 등에 의존하므로 변화가 큰 경우 탄력성이 결여될 수 있다. 네트워크의 경우 당사자간 자원 의존적이고 그 결합에 따른 이익이 있으며 상호지향성, 보완성, 적응성, 상호 의존성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네트워크내에서 정보 흐름은 시장보다 두텁고 위계보다 자유스럽다. 특히 관계의 상호성과 안정성은 학습, 정보교환, 신뢰, 협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갈등, 의존, 배타성도 내포한다.

4. 2. 1. 4. 전략적 개념으로서의 네트워크에 관한 입장

Jarillo(1988)는 Williamson(1985)과 Ouchi(1980)의 경제 조직 구분 개념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간의 관계를 구분지었다.

〈표 4-2〉 전략적 네트워크의 위상

	경쟁적 영화게임	협동적 비영화게임
시장	고전적 시장	전략적 network
위계	관료조직	친밀 집단(clan)

자료: Jarillo(1988).

Ouchi는 위계를 관료와 친밀집단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목표의 낮은 일치성, 적대적 내부 관계, 높은 거래비용, 후자는 공정성, 목표 일치에 따른 신뢰의 존재, 장기 관계, 불특정 계약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전략적 네트워크는 기업간 친밀 관계, 장기적 관점, 독립성, 자산 특유적 관계의 존재를 포함하되 협동적이면서도 시장적인 관계의 병존을 나타낸다. 특히 전략적 측면에서 관계가 설정되므로 협동에 따른 생산적 이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4. 2. 1. 5. 활동의 지배조정 원천에 따른 입장

Hakansson과 Johanson(1994)은 다음과 같이 행위자의 활동이 방향지워지는 원천과 관련하여, 네트워크는 상이한 이해 관계와 견해를 가지는 여러 행위자로 구성되며 그 행위자들은 교환 관계를 통해 다른 행위자에 연계되어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행위자를 유인하는 내부적인 힘은 자기 이익 추구라는 이해 관계와 행위자들의 동의를 얻은 규범으로 구분되며 외부적 힘은 상호 관계가 일반적인지 특정한 것인지에 의해 분류된다.

〈표 4-3〉 활동 결정의 내·외부적인 원천별 네트워크 위상

		내부적 힘의 근거	
		이해관계	규범
외부적 힘의 관계	특정 관계	네트워크	위계
	일반적 관계	시장	문화:profession

자료 : Hakansson, Johanson(1994).

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이해 관계를 기초로 연계된다. 그들에 의하면 이 같은 유형 구분은 이론적일뿐 현실적으로는 이들간의 공존과 상호 영역 침투가 형성되며, 개념상 네트워크는 시장과 위계간의 단순한 중간적 유형이 아니고 특유의 유형이라고 본다.

4. 2. 1. 6. 위험도와 거래자간의 신뢰 수준에 의한 구분 입장

Ring과 Van De Ven(1992)는 거래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위험도 및 상대에 대한 신뢰 수준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배조정구조를 구분하였다. 그는 네트워크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거래자간의 높은 신뢰의존도와 거래상의 높은 위험의 경우 선택되는 관계적 계약이 네트워크체계와 동등함을 암시하고 있다.

〈표 4-4〉 위험과 신뢰도에 따른 네트워크의 위상

		거 래 위 험	
		低	高
거 신 래 자 퇴 간 의 도	低	시장	위계
	高	반복적 계약 (recurrent contract)	관계적 계약 (relational contract)

자료 : Ring, Van De Ven(1992).

따라서 네트워크는 높은 위험 사업의 경우, 신뢰에 기초한 공식적 장기 계약이나 비공식적 관계에 의하여 상호의존적인 거래자간에 자율적으로 협동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간의 효율적 지배조정구조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그 위상은 시장과 위계와는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2. 1. 7. 종합적 평가

이상의 상이한 시각에서 제시된 시장, 위계, 네트워크에 관한 상호 비교를 살펴보았으나 중요한 것은 그 세 개념이 대체로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네트워크는 신뢰,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 비공식적 조정 가능성, 상호성, 학습, 협동, 전략적 이득, 장기적 관계, 자율성, 특정한 이해 관계, 라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시장과 위계의 중간적인 성격에 따른 특징도 있으나 높은 위험이나 특정한 이해 관계라는 非一般의 상황 하에서의 네트워크의 유용성이라는 특수성도 존재한다. 또한 학습이라는 진화론적 측면도 존재하고 신뢰, 협동이라는 인간 행동에 대한 또 다른 가정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 협동이 개인적, 문화적인 윤리적 특성인지, 기업 단위간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 생성된 행동 유형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그 자체에 대한 생성 이론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2. 2.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적 견해와 비교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TCE)이 기업간 관계를 설명하는 代替적인 이론 체계라고 규정한다면 두 이론간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규명을 위해 그간 전개되어온 내용을 중심으로 두 이론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첫째로, TCE에서의 조직형태의 결정은 안정적인 균형 조건을 중심으로 하는 신고전파적 틀내에서 이루어지며 시장과 위계라는 지배조정구조를 중심으로 함에 비해 네트워크 이론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지않고 기업을 사회적 단위로 보는 보다 광범위한 교환 이론에 근거하여 자원의존적 통제와 조정을 기초로 한다. 둘째로, TCE가 제도적이고 정태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지배조정구조를 설명하려는데 비해 네트워크 이론은 산업 시스템의 동태적인 국면과 그 시스템내에 있는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을 기술하고 분석하려 한다. 셋째로 기회주의를 제외한 TCE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은 네트워크 이론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데 도입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는 사회적 교환 이론의 경우처럼 신뢰(trust)를 중시한다. 넷째로, TCE는 일정 제도와 능력 하에서의 정태적 효율성 지향에 목적이 있으나 네트워크 이론은 동태적인 능력(competence)형성을 지향하며, 기업간의 상호 작용적인 학습과 다른 자원에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위자간의 구속, 신뢰, 지속적 관계생성을 지향한다. 이점에서는 기업진화론의 특징을 일부 공유한다. 다섯째로, TCE는 거래의 차원의 분석에 따른 기회주의 아래에서의 위험 감축을 중시하면서도 기회주의가 거래 상대와의 교환 경험 발생에 따라 그 정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으나 네트워크 이론은 관계의 지속과 신뢰에 따른 장기 이득을 고려한다. 여섯째로, 높은 자산 특유성은 TCE경우 수직통합을 초래하는것으로 이해되나 네트워크 이론의 경우에는 기업간의 상호적응과 상호 자산 이용을 중시하므로 자산 특유성이 높은 경우 기업은 외부 자원에 의존하고 주요 자원을 상호 관계에의 투자에 활용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일곱째로, TCE는 특정 유형의 거래 관계의 총체적 특성에 의해 지배조정구조의 다양한 선택을 설명하나 네트워크 이론은 상호 의존적 쌍방적 관계에 있는 시스템의 특성에 있어서의 관계를 설명한다. 여덟째로, 네트워크 이론은 기업간의 지속적 관계가 교환과 생산비용 감축, 지식 개발과 변화 증진, 상호간의 통제 가능화, 교환과 적응 과정에 따른 상호 지향성 전개를 가져온다고 보나 TCE는 그런 관계가 위계내에서는 존재하나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TCE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첫째로, 시장은 거래 문화의 종합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사회적 산물로서 사회 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특정 사회의 구조적 맥락내에 뿌리박고 있으며, 둘째로, 경쟁적인 시장 교환은 많은 조직간의 협력에 의해 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내부에도 시장 과정이 도입되고 있음은 물론, 시장 계약내에서도 위계적 요소가 도입되고 있고, 셋째로, 항상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고 가장 효율적인 제도적 형태가 생존한다고 보나 이는 현실과 다르며, 넷째로, 거래비용 개념이 광범위하고 정태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수직통합의 주동기가 거래비용 절감이라고 하나 이는 실증상 지지되기 어려우며, 다섯째로, 기회주의는 기업내에도 존재할 뿐 아니라 조직이 반드시 제한합리성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도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여섯째로, 거래는 쌍(雙)의 관계이지만 산업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인 많은 관계로 구성되므로 더 광범위한 시스템의 효율성은 단일의 쌍방적 거래상의 효율성과는 다를 수 있고, 일곱째로, 인간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이라고 보나 경제적 관계에는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상호 신뢰 전통에 따른 교환의 관계가 존재하며, 여덟째로, 거래비용이론은 자산 특유성, 기회주의 수준을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정태적이고, 아홉째로, 기업의 행동은 환경에 내재적이며 쌍방적 관계 및 전반적인 관계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들간의 사회학적, 경제적, 사회정치적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TCE는 상이한 거래특성의 상황 하에서 상이한 지배조정구조의 존재와 제도 형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안정적 균형조건을 고려한 것이나, 네트워크 이론은 기업의 동태적, 상호 적응적 행동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략 분석에 유용한 개념을 제공한다. 그러나 거래비용경제학 자체가 분석 수준의 범위에 따라 광범위한 제도 분석을 시도하기도 하므로 향후 설명 능력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V. 신제도학적 기업이론과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간의 관계

5. 1. 기업간 관계 형성의 기본적 성격

경제의 분석단위를 거래로 파악하는 거래비용이론에서는 기업이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이 논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동태적인 환경 하에서 가변적인 경우 기업은 해체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의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 한편 현대기업의 구조 연구에 크게 기여한 Alchian 과Demsetz(1972)는 Coase와 같은 맥락을 가지면서도 기업의 특징을 협동적 전문화에 의한 팀 생산으로 보며, 생산을 위한 투입물 구성원의 나태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자본제 기업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다변(multilateral)계약에 의한 생산방식과 기업과의 상대적 범주는 기업의 본질적 요소인 거래비용, 실물적인 측면에서의 팀 생산의 효율성 및 기업구성원의 나태억제에 있어서의 효율성 정도와 가변성에 따라 동태적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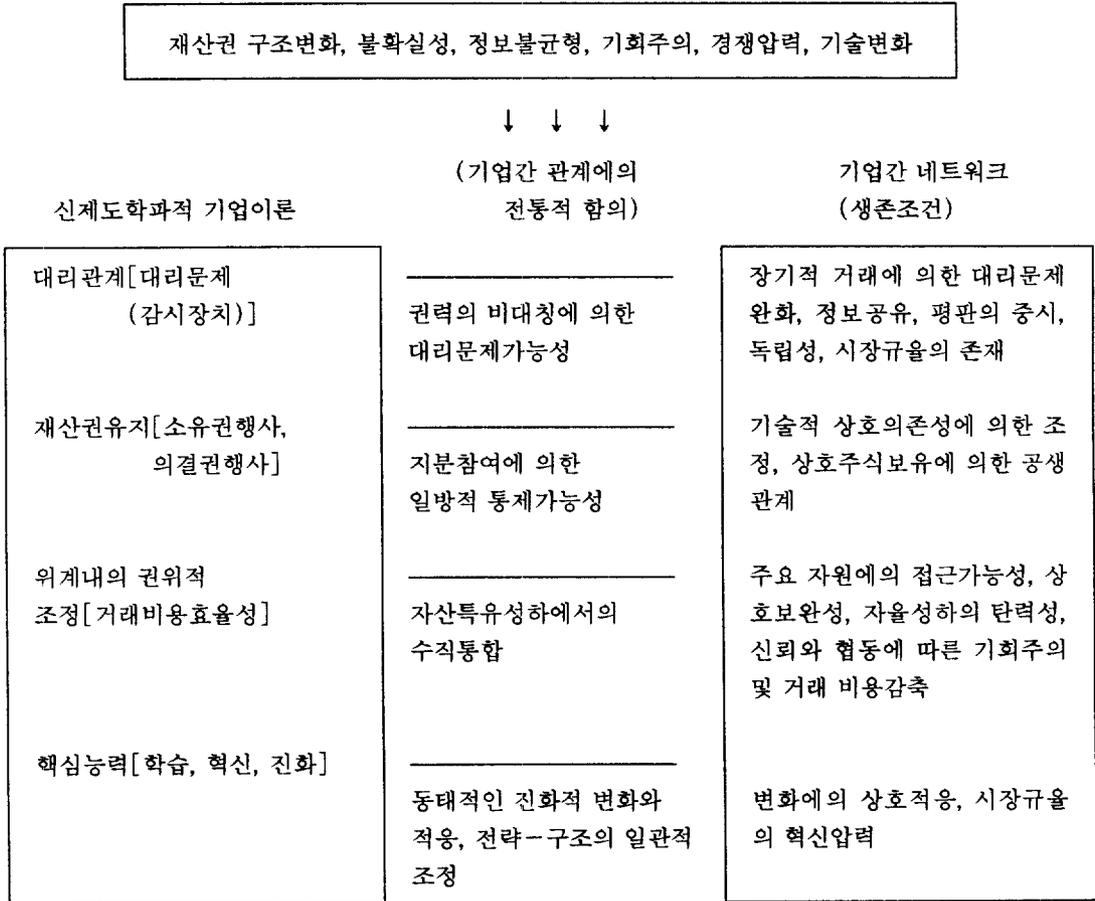
기업간 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간의 장기적이고 긴밀한 거래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때 그 방식은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단일 기업이 기업존재나 수직통합 형성요인의 약화에 의해 여러개 기업으로 해체되면서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둘째로는, 기존의 독립적 이었던 기업들이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의해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지속적이고 긴밀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든 그 본질은 통합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긴밀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이는 통합에 의한 거래비용 감축보다는 독립적 거래관계에 따른 탄력성과 경제적 유인의 유지와, 상호의존성과 신뢰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거래관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협동적 전문화가 독립기업 간에도 전략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구성기업 상호간의 기회주의와 대리문제도 적정히 통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간 관계 형성의 본질은 단일 기업의 생존조건인 거래비용 효율성, 협동적 전문화, 나태문제와 대리문제 같은 기회주의의 통제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하거나 전략적인 상호의존성에 의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거래의 이득이 충분히 크다는 것

과 관련되어 있다. 그 관계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적인 독립적 거래관계와 위계적인 지속적 거래관계가 병존하면서 생존가능한 탄력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거래비용, 팀 생산의 협동적 전문화, 나태역제라는 기회주의는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인 거래비용경제학적 기업이론, 실물의 동태적 효율성을 다루는 기업진화론 및 대리이론과 각각 대응되는 관계에 있다. 특히 오늘날 환경의 불확실성과 동태성, 전략적 협동의 필요성, 그리고 거래계약의 가치결정과 관련하여 기업진화론과 재산권경제학은 보다 확장적인 적용영역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기업간 관계의 대표적 특징으로 등장하고 있는 기업간 네트워크는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들의 기초개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상관적으로 고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2.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과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간의 관계 분석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들은 수직통합이나 시장, 위계간의 중간적인 지배 조정 형태를 다루는 거래비용경제학적 입장을 제외하면 주로 단독 기업의 생존과 행동을 설명하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 이론이나 대리이론도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서 네트워크내에서의 기업간 거래관계에 함의를 가질 수 있으며, 동태성을 중시하는 진화론도 네트워크내에서의 상호 적응 개념과 관련되므로 유용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이 완성된 이론으로서 정착되지는 못했으나 기업간의 네트워크 자체가 동태적 특성 하에서 생존 가능한 조직형태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신제도학파적인 기업이론에서의 함의가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론이 네트워크도 포함하는 포괄적 이론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이 기업간 네트워크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다음 <그림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신제도학파적 기업이론에 기초한 기업간 네트워크의 생존조건 관계



이 그림을 요약하면 대리이론은 기업의 내부 구조를 대리 관계로 보고 대리비용 극소화의 관점에서 계약, 조직상의 최적 행동을 지향한다. 기업간의 대리문제 가능성은 자산 특유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협동 하에서 권력 관계의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보 공유, 시장 경쟁하에서의 퇴출 가능성, 장기적 거래 관계상의 유리점, 상호적 특유성에 의한 보완성 하에서는 적정한 긴장이 유지되는 한 대리 문제는 효과적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본다. 재산권경제학적 기업이론의 경우 외부의 재산권 구조가 고정된다면 기업 내부에서의 소유구조 변화는 재산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석화 현상

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간에 일방적 통제 관계와 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의 상호 보유나, 핵심적 기술의 상호 보유에 따른 협상력 확보, 그리고 기업간 관계 시스템 전체의 생존이 전제되는 한 이러한 일방적 관계의 지속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래비용경제학의 경우 자산 특유성은 수직통합을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불확실성과 경쟁 강도가 높고 변화가 큰 경우 생산 기술상의 탄력성이 요구되고 전문화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신뢰, 협동, 정보 공유 하에서 기회주의와 거래비용이 감축되고 생산 비용 또한 효율화가 가능해지게 되어 수직통합의 필요성이 제거될 수 있다.

진화론적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각 기업은 핵심 능력의 개발과 동태적 진화, 학습을 중시하여 정태적 비용 효율성보다는 혁신적 능력 개발을 위한 전략과 구조 조정을 필요로 한다. 기업간 관계에서도 소극적, 정태적인 효율성 하에서의 비용 개념보다는 협동과 신뢰 관계, 상호 적용에 따른 장기적 이득을 중시하는 경우 네트워크의 특성과 목적에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간 네트워크는 제도와 진화를 고려하는 신제도학과적 기업이론이 제시하는 기업 생존 개념을 동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한 안정적 관계유지와 생존을 가능케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존재 여부는 여기서의 핵심 개념의 현실적 강도와 영향력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개념 자체가 개방적, 동태적이어서 항상 변화하면서 조정되는 국면을 가지므로 오늘의 기업 행동에 유용한 틀임을 부인할 수 없다.

VI. 요약 및 향후 연구과제

6. 1. 요약

최근 경쟁의 격화, 불확실성의 심화, 급격한 기술 혁신 하에서의 기업의 행동을 고찰하기 위하여는 기업과 기업간 관계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는 신고전파적인 주류 경제학적 사고만으로는 기업 현상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어렵게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현실적인 제도, 재산권, 계약, 거래비용 및 변화 과정을 고려한 재산권 경제학, 거래비용경제학, 대리이론, 진화론적 경제학 등의 입장에서 전개된 신제도학적 기업 이론들의 유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적인 기업이론의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핵심개념의 체계화를 요한다. 특히 단독 기업의 행동 설명 이론보다는 기업간 관계의 맥락을 고려한 기업 행동설명이 현실적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은 아직 정립된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미국, 영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스칸디나비아국가 등 조직간 연계와 협력이 특징을 이루는 국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네트워크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에 따라 그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네트워크개념이 제도의 영향이 지배적인 우리의 경우 경쟁 우위의 확보 수단으로서 대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간에도 활용될 수 있는 기본적 개념이라는 인식하에서 신제도학적 기업이론에 대한 비교 고찰과 통합적 기업이론의 모색과 요소 체계를 제시하고 기업간 네트워크에 대한 신제도학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특히 기업간 네트워크도 시장, 위계와 함께 경제 활동을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그 자체의 존재 양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간 제시되어 온 기업간 네트워크 이론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신제도학적인 기업이론의 측면에서 그의 생존 조건을 검토하여 보았다. 기업의 행동이 제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현실 하에서 기업행동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기업간 관계모색을 위하여 이러한 이론의 시사점은 클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과 경쟁, 그리고 기술변화는 권위적, 경직적, 수직통합적 조직의 생존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핵심능력을 중심으로 신뢰를 기초로 한 개별 기업간의 탄력적, 자율적 관계에 따른 동태적 협동 관계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간 네트워크는 위험 분산, 상호적 학습과 조정, 정보 공유의 장점 하에서 안정적인 동태적 관계의 유지를 가능케 하며, 외부시장에 의해 규율되면서 거래비용 절감, 기회주의 제거를 가능케 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시스템 전체의 동태적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기업 내부 관계와 기업간 관계는 아직도 경직적이고 위계적이며 일방적인 관계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므로 자율적, 탄력적 관계와 핵심능력에 기초한 동태적 상호 적응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세계적 환경 하에서의 생존을 위한 거시적 제도의 모색, 기업의 내부 구조 조정, 기업간 관계의 바람직한 진

로 모색과 재벌 조직의 진화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는 이러한 틀에 입각한 총체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2. 향후 연구과제

기업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통합하여 동태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통합적 기업이론의 모형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초 사회학에서 제시된 네트워크개념, 기업간(산업) 네트워크 개념의 다양성 등이 아직 정리 되고 있지 못하며 그 관계가 불명확할 뿐아니라, 네트워크이론의 유용성의 전제 등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네트워크는 어떻게 형성되고 신뢰는 왜 생성되며 네트워크는 어떤 과정으로 변화 하는가하는 동태적 과정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미래의 과제이다. TCE적 접근과 네트워크 이론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연구를 요한다고 보이며, 특히 기술 및 문화적 특징과 네트워크 이론간의 상관성 또한 향후 연구과제로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Alchian, A. A. (1950, June), "Uncertainty, Evolution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8, pp. 211-222.
2. Alchian, A. A. and Demsetz, H. (1972), "Production, information costs, and economic organiz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62, pp. 77-95.
3. Alessi, Louis De (1983, July), "Property Rights and Transaction Costs : A New Perspective in Economic Theor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20, pp. 59-69.
4. Alessi, Louis De (1983), "Property Rights, Transaction Costs, and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pp. 64-81.

5. Aoki, M., Gustaffson, B., Willamson, O. (1990), *The Firm as a Nexus of Treaties*, Sage Pub.
6. Axelsson, B., Easton, G., (1992) *Industrial Networks*, Routledge.
7. Barney, J. B. and Ouchi, W. (1986), *Organizational Economics*, Jossey-Bass Publishers.
8. Barzel, Y. (1989), *Economic Analysi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Univ. Press.
9. Binger, B. P. and Hoffman, E. (1989), "Institutional Persistence and Change,"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pp. 67-84.
10. Bradach, J. L., Eccles, R. G. (1989), "Price, Authority and Trust: From Ideal Types to Plural Forms", *Annual Review of Sociology*, pp. 97-118.
11. Brennan, M. J. (1994, Summer), "Incentives, Rationality, and Society,"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pp. 31-19.
12. Chandler, A. (1992),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Economic History of the Industrial Enterpris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pp. 79-100.
13. Chandler, A. D. (1992), "What is a firm? A Historical Perspective," *European Economic Review*, 36, pp. 483-494.
14. Coase, R. H. (1988), *The Firm, the Market and the Law*, Univ. of Chicago Press.
15. Coase, R. H. (1937), *The Nature of the Firm*, *Economica*, pp. 386-405.
16. Collin, S. O, Larsson, R. (1993), "Beyond markets and Hierarchie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pp. 1-107.
17. Demsetz, H. (1988), *Ownership, Control and Firm*, Basil Blackwell.
18. Eggertsson, T. (1990), *Economic Behavior and Institutions*, Cambridge Univ. Press.
19. Fama, E. F. (1980),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288-307.
20. Fama, E. F., Jensen, M. C. (1983), "Agency Problems and Residual Claims,"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pp. 327-350.
21. Fama, E. F., Jensen, M. C.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pp. 301-325.
 22. Furubotn, E. G., Pejovich, S. (1974), *The Economics of Property Rights*, Cambridge, Ballinger.
 23. Furubotn, E. G., Richter, R. (1991),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exas A&M Univ.
 24. Goldberg, V. P. (1985), "Production function, Transaction Costs,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in *Issues in Contemporary Microeconomics and Welfare*, Suny Press, pp. 395-402.
 25. Grabher, G. (1993), *The Embedded Firm :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s*, Routledge.
 26. Groeneweger, J. (1993), *Dynamics of the Firm*, Edgar Elgar.
 27. Hodgson, G. M. (1993), *Economics of Institution*, An Elger Reference Collection.
 28. Imai, Ken-ichi, Itami, H. (1984), "Interpenetration of Organization and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pp. 285-310.
 29. Imai, Ken-ichi (1987-1988), "The Corporate Network in Japan," *Japanese Economics Studies*, pp. 3-37.
 30. Jarillo, J. C. (1988), "On Strategic Network,"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pp. 31-41.
 31. Jensen, M. C., Meckling, W. H. (1976), "Theory of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pp. 305-360.
 32. Johanson, J., Mattson, L. G. (1987), "Intreorganizational Relations in Industrial System: A Network Approach Compared with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Vol. 17, pp. 34-48.
 33. J. Frances, R. Levacic, J. Mitchell, G. Thompson (1991), *Markets, Hierarchies*,

- and Networks*, Sage.
34. Langlois, R. N. (1988), "Economic Change and the Boundaries of Firm,"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pp. 635-657.
 35. Libecap, G. D. (1986), "Property Rights in Economic History: Implications for Research,"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pp. 227-252.
 36. Maki, U. Gustofsson, B., Knudsen, C. (1994), *Rationality, Institutions and Economic Methodology*, Routledge.
 37. Miruchi, M. S. and Schwartz, M. (1987), *Intercorporate Relations*, Cambridge Univ. Press.
 38. M. Rutherford, M. (1994), *Institutions in Economics*, Cambridge Univ. Press.
 39. Nelson, R. R. (1991), "Why do firms differ, and how does it matte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2, pp. 61-74.
 40. Nelson, R. R, Winter, S. G. (1982),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The Belknap Press.
 41. North, D. C. (1991), "Institutional and Transaction Cost Theory of Exchange," *Perspectives on Positive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niv. Press, pp. 182-193.
 42.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 Press.
 43. Ouchi, W. G. (1980, March), "Markets, Bureaucracies and Cla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pp. 129-141.
 44. Penrose, E. T. (1959),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 John Wiley and Sons, NY.
 45. Pfeffer, J. and Salancik, G. R.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Harper & Row Publishers.
 46. Powell, W. W. (1990), "Neither Market nor Hierarchy: Network form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pp. 295-336.
 47. Puttersman, L. (1987), *The Economic Nature of Firm*, Cambridge Univ. Press.

48. Ring, P. S., Andrew H. Van De Ven, (1992) "Structuring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Organiz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3, pp. 483-498.
49. Simon, H. A. (1991 Spring), "Organizations and Marke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pp. 25-44.
50. Sjostrand, Sven-Erik (1993), *Institutional Change*, Sharpe.
51. Stiglitz, J. E. (1991 Spring), "Symposium on Organizations and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pp. 15-24.
52. Thorelli, H. B. (1986 January), "Network ; Between markets and hierarch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pp. 37-51
53.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The Free Press.
54. Williamson, O. E. (1986), *Economic Organization*, Wheatsheaf Books.
55. Williamson, O. E. (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The Free Press.
56. Williamson, O. E., Winter, S. G. (1991), *The Nature of the Firm*, Oxford Univ. Press.
57. Williamson, O. E. (1988, july), "Corporate Governance and Corporate Finance," *Journal of Finance*, pp. 567-592.
58. Williamson, O. E. (1990), "A Comparison of Alternative Approaches to Economic organization,"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pp. 61-84
59. Williamson, O. E. (1991), "Strategizing, Economizing, and Economic Organiza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91, pp. 75-94.
60. Williamson, O. E. (1991), "Comparative Economic Organiz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pp. 269-296
61. Williamson, O. E. (1991), "Economic Institutions: Spontaneous and Intentional Governance,"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pp. 160-187

62. Williamson, O. E. (1992), "Markets, Hierarchies and Mordern Corpor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pp335-352

A Study on the New Institutional Theories of Firm and Interfirm Network Theory

Seok Yong Kim*

ABSTRACT

Under the contemporary situations of worldwide deregulation, rampant competition, rapid technological innovation, corresponding institutional change and coexistenc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t would be more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identify firms with evolving entities embedded in specific institutions rather than neoclassical black boxes. Reflecting these trends, recent economics accepts the increasing significance of new institutional economics which has been developed under more realistic assumptions with emphasis on institutional perspective. Active studies have also been conducted to provide the theories of the firm based on the framework of transaction cost economics, property rights theory, agency theory, and evolutionary economics, trying to establish the theories of interfirm relationship within the context of network theory. Since all these fields of economics partly overlap with those of management, laying the foundation for higher potential of operationalization, interdisciplinary approach will contribute to systematic understanding and significant explanation of corporate behavior. Especially, such concepts as institutions, contracts, transaction costs, bounded rationality, opportunism, governance structure, trust, cooperation and evolution which have constituted core concepts of old and new institutional economics could be effectively used to broadly explain the dynamic corporate organization and behavior, enriching the managerial implications in the future. Along these lines, the purpose of this paper primarily is to consistently study and analyze firm and its extended form of interfirm network through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on new institutional theories of institutions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the process, efforts to provid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macro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s and firm, and structures of core concepts required for establishing integrated theory of firm are logically made.

* Professor, Dongguk University